



박종운 공동대표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공동대표 칼럼

## 2017년을 돌아보며 2018년에 거는 기대

2017년을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회고해 봅니다.

2016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2017년에도 한파(寒波)를 뚫고 광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5월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국민 친화적인 물결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안보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약한 모습을 감추기 어렵지만, 이제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져 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칫하면 종교적인 행사로 치장되기 쉬운 한국교회 풍토를 잘 알면서도, “그래도 500주년인데~” 하면서, 교회 개혁

발행인 | 박득훈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편집인 | 김애희  
편집실무 | 김종미  
편집디자인 | 로로브레인주식회사  
발행일 | 2017년 12월 26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전화 | 02-741-2793  
팩스 | 02-741-2794  
홈페이지 | [www.protest2002.org](http://www.protest2002.org)  
이메일 | [protest@protest2002.org](mailto:protest@protest2002.org)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http://www.protest2002.org)

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기도회'에 준비 단체로 참여하였고, 매달 주제를 정한 뒤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 수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은 여전하고, 성차별 및 성폭력의 문제도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세습 납부를 앞두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한국교회에 결정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아들 목사님도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교단 헌법은 세습 금지 조항까지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세습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더니, 급기야 교회 합병으로 세습 시도, 교인 총회(공동의회)를 통한 세습, 노회 내부 분쟁과 갈등 촉발의 모습을 보여 주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분의 기도와 노력에도,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타받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살펴보면,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 개혁은 곧 사회 개혁이요, 사회 개혁이 곧 교회 개혁의 통로였습니다. 교회가 개혁되면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사회가 개혁되면 변화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성도들이 하나님나라 가치관으로 훈련되어 한국 사회를 개혁하게 되리라 소망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혁된 사회가, 개혁된 사회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성도들이, 교회 개혁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암흑기 중세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스스로 개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특히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끊임없는 기도와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이 다가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와 더불어 염려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휘둘릴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간에 얼추 균형을 맞추면서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국내외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만큼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 사회경제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내년 1/4분기에도 명성교회 세습 반대·철회 운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고, 과연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려 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혁하고 바로 세울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치시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한국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보를 눈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지켜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매사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혁연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상담, 세습 반대 운동,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 교회 재정건강성 운동 등을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가칭)교회성폭력상담센터' 인큐베이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센터가 잘 설립돼 성폭력 피해자의 구조와 구제, 치유 및 회복은 물론이고 가해자의 회개와 회복에도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회에 한층 젊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이슈파이팅 사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교회 개혁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이 있었기에 개혁연대가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이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데, 우리 개혁연대가 앞장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실 거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2017년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정기총회 '스스로 떨치고 일어난 돌들의 외침'</li> <li>2016년 교회 상담 통계 및 경향 분석</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개혁500주년 2월 연합 기도회 '정의의 숨결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명성교회 세습 감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li> <li>명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교회 앞 피켓 호소</li> <li>종교개혁500주년 3월 연합 기도회(주제: 세월호)</li> <li>2016년 사역 보고서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정에 대한 세습 반대 목소리를 높임</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동남노회 앞 피켓 호소</li> <li>'목회자 소득 신고 어렵지 않아요' 카드 뉴스 발행</li> <li>종교개혁500주년 4월 연합 기도회(주제: 정치 개혁)</li> <li>찾아가는 개혁연대-함께여는교회, 친구교회</li> <li>IVF 산돌학교 청년들과의 티타임</li> <li>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회 꾸준히 모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여러 사안을 놓고 기도함</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간담회] 2017년형 민주적 교회 운영</li> <li>세습 제보 접수 / 상담 활동</li> <li>개교회 이슈파이팅</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개혁500주년 6월 연합 기도회(주제: 교육과 종교개혁)</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li> <li>여의도순복음교회 재정 의혹 해소 및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li> <li>종교개혁500주년 7월 연합 기도회(주제: 사회 정의-법과 종교개혁)</li> <li>2017년 목회자 소득 신고 전국 설명회(기장 용인노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설명회를 통해 소득 신고하려는 목회자와 교회를 도움</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li> <li>종교개혁500주년 8월 연합 기도회(주제: 선교 운동의 반성)</li> <li>교계 · 교회 내 성문제 상담 및 (가칭)교회성폭력상담센터 개소 준비</li> <li>2017년 성서한국 전국 대회 홍보 활동</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는 활동</li> <li>2017 교단 총회 참관 활동(예정활동 · 통합 참관, 참관기 발표, 카드 뉴스 발행)</li> <li>[포럼] 모두를 위한 헌금, 공적 헌금</li> <li>2017년 목회자 소득 신고 전국 설명회(예정합신 경북노회 등 4곳)</li> <li>종교개혁500주년 9월 연합 기도회(주제: 한국교회의 반성)</li> <li>종교개혁500주년 연합 기도회 참석자들과의 티타임</li> <li>찾아가는 개혁연대-주날개그늘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통한 선한 견제 및 교단 총회의 모습을 알림으로써 여론 형성</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명성교회는 세습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li> <li>명성교회 세습 반대 목회자 · 교인 온라인 서명운동(현재 총 6,310명)</li> <li>명성교회 세습 반대 촉구 동남노회 앞 피켓 호소</li> <li>종교개혁500주년 10월 연합 기도회(주제: 우리 시대 개혁 과제)</li> <li>2017년 목회자 소득 신고 전국 설명회(기장 경기노회 등 6곳)</li> <li>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2017 작은교회 한마당 ·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찬양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단법과 노회법을 무시한 채 감행되는 세습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임</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의 공의로운 판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li> <li>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니까'</li> <li>명성교회 세습 반대 명성교회 앞 피켓 호소</li> <li>교회 재정 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과세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li> <li>종교개혁500주년 11월 연합 기도회(주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다)</li> </ul>	

연중 내: 모범 정관 보급 활동, 교회상담, 목회자 소득세 신고 상담, 교회 세습 상담 · 신고 접수, 교회재정건강성운동/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 사무국 담당, 연대 활동, 소식지 '공감' 발행, 회원 소식지모니터링단 평가모임

한국교회에 외치는 소리

# 돈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에 자유를



김정태 집행위원(사랑누리교회 목사)

환경이 나빠져서인지 예전보다 점점 병원 심방 가는 일이 잦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생을 살다 떠나실 때입니다. 기도 외에 해드릴 것 없는 목사로서는 참 난감하고 괴롭습니다. 요즘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며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명성교회가 꼭 말기암세포 같습니다. 암세포는 대부분 정상 세포보다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몸 전체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명성교회가 똑같습니다. 급격한 대형화를 이루더니 이제 같은 몸의 지체가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암세포 맞습니다.

암세포를 걸러내는 1차 관문은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마디처럼 림프관 중간중간 림프절이 있어서 면역기능을 통해 암을 저지한답니다. 그러나 림프절이 막아내지 못하면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지요. 명성교회는 아주 이상한 공동의회를 통해 내부의 림프절을 통과했습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서울동남노회라는 림프절을 완전히 찢고 뚫었습니다. 마지막 림프절이 총회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뚫리기 직전입니다. 총회가 뚫리면 무서운 암세포가 통합교단 전체로, 이후 한국교회로 퍼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잘라내고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해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싶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동남노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할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 나이 지긋한 총대 분은 우리를 향해 살짝 다가오시더니 “그럼 세습은 안 되지, 그럼 안 돼” 하시고는 “수고합니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한 총대 부목사님은 노회원에게 제공하는 간식을 저희에게 건네주시면서 “제 마음은 여기에 있지만 제 처지가 이래서…” 하셨습니다. 심지어 노회 행사를 돕던 분들도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시더니 일행 모두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서로 얼굴 부딪히면 불편하다며 점심시간 전에 주차장 엘리베이터로 따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하나님이 힘내라 주시는 거라 믿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측 장로님들은 화난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너희는 어디 교회 다니냐? 능력도 없는 것들이 교회부터 키워봐. 우리 목사님처럼 큰 교회 만들어봐. 능력이 있으니까 세습도 하는 거야” 하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늘 듣던 말이지만 그날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저는 이 조롱 안에 명성교회의 신학이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커진 것이 김삼환 개인의 능력이라

고 믿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쟁취한 것이라 보는 것이지요. 그들은 큰 것과 힘을 숭배합니다. 큰 것이 좋은 것이요, 작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니까요. 또 그들은 힘이 있다면 야깁없이 자기 것을 쟁취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노회를 힘으로 무력화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지셨어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꺾고 황제가 되신 분이십니다. 가만 보니 명성교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랑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듯 세습도 감행하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자기들을 돕는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다 거절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성은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삼은 교회인가요?

명성교회 문제를 놓고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다 보니 공통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계 안팎의 많은 분이 명성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서울동남노회록을 보니까 명성교회가 내는 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노회 총예산이 633,664,000원인데 그중 명성교회가 417,468,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숫자가 불편한 분을 위해 요약하면 대략 6억 중 4억,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전체 노회 예산의 66%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는 더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회록은 아주 친절하게도(?) 예산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교회를 정렬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명성교회가 1번 자리에 4억 넘는 액수가 적혀 있고, 맨 끝쪽에 있는 교회 이름 옆에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미납’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노회가 돈 내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일렬로 세울 수 있지? 알면서도 참는 걸까? 아니면 이게 문제라 여기지 못하는 걸까? (참고로, 제가 속한 노회도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친절히 정렬해주지는 않아요. 순서를 알려면 혼자서 애를 많이 써야 해서 포기하고 말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졌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명성교회가 발휘하는 돈의 위력

은 대단합니다.

저는 교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도움은 명성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럴 때 더 나서서 명성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매섭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간의 우정 때문에 또는 받은 것이 많아 나서지 못한다면, 명성교회의 모든 선교 구제 장학 복지 등의 사업은 결국 모 재벌의 그 장학금과 같은 것이 될 뿐입니다. 재벌의 관리를 받던 이들이 재벌의 부정과 불의에 한마디 못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어려운 걸 몰라서 하는 천진난만한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신학과 신앙에서는 적어도 그리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명성교회의 후원 받는 것을 이제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분 또는 그런 기관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소리의 크기만큼 그동안 명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사역을 다른 교회들이 연합하여 떠맡아 주는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공동으로 후원하고, 기관과 단체들이 독립해 갈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울 때 제2, 제3의 명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무기로 지지자들을 만들고, 돈을 무기로 입을 막는 이 악한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한 형제자매 된 다른 교회들이 재정적 희생도 함께 감당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우리의 그리스도 형제자매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선포해야지요.

최근 통합 측 신대원 동기들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성명을 내면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다들 하필 이런 일로 모이게 되었다며 멋쩍어하면서도 무척이나 반가워들 하고 있습니다. 교단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멀리 함께 땀 동지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다시 숨을 크게 쉬어야겠습니다. 긴 싸움이 될 테니 호흡을 가다듬어야지요. ■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 릴레이 1인 시위 중

# “세습방지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예정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11월 22일(수)부터 총회 재판국의 공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동호 목사(세반연 공동대표)와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2월 22일(금)까지 총 92명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느낀 생각과 마음을 글로 남겨 주었습니다. 교회 세

습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바람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정통합 총회의 세습방지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명성교회는 거침없고도 노골적인 세습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이제는 교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회는 세습방지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전화 02-741-2793  
인터넷 <http://sites.google.com/view/2017seban>



## 명성교회 세습반대 1인 시위 후기

“통합 교단과 한국교회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

“총회 재판국은 선한 양심에 따라 오직 법과 정의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랍니다. 명성교회는 자기기만의 늪에서 벗어나 회개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부끄럽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명성교회의 용기있는 결단을, 한국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김영민 회원

“암세포를 수술로 잘라내지 못하면 온몸으로 전이되어 전체가 죽습니다.” - 김정대 목사(사랑누리교회)

“명성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서, 명성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 김예성 교우(명성교회 대학부, 장신대)





“우리의 관심은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침과 움직임은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워야 할 ‘교회’를 위함입니다!”  
- 유영기 교우(장신대 신대원)

“성도 한 명 한 명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여태윤 교우(전 명성교회)

“교회는 담임 목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 서선교 교우(홍익MF)

“공의를 훼손함은 죄악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는 교회 세습의 교과서가 되고 선봉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 내 양을 먹으라 하셨습니까. 김삼환, 김하나 그리고 이 땅의 거짓 목사들 회개하십시오.” - 정봉희 회원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 방동주 목사(하이공동체교회)

“건강한 교회로 다시 갱신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 김애희 교우(더함공동체교회)

##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탄생 ⑤

# 천세용의 저항적 자살과 성공회 사제들

2015년에는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평신도운동’, 2016년에는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개혁운동’이라는 주제로 일제의 강제점령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교회개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에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항하며 개혁자의 길을 걸었는지,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저항의 길을 함께 걸어 봅시다.

[글 쓰는 순서]

1. 예수는 어떻게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2. 교회 여성, 기생관광을 규탄하다
3. 기독교인들의 교회개혁 이야기
4.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 88평화통일선언
5. 천세용의 저항적 자살과 성공회 사제들

## 들어가며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로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국정원 특검 실시’를 외치며 분신했던故 이남종 씨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1월 1일에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남종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의평화를위한기독교인연대, 향린교회, 촛불교회 등 주로 진보적 입장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이남종 추모 기도회를 보도한 <뉴스앤조이> 기사 밑에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다니,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가 묻고 싶다”, “영정 앞에 있는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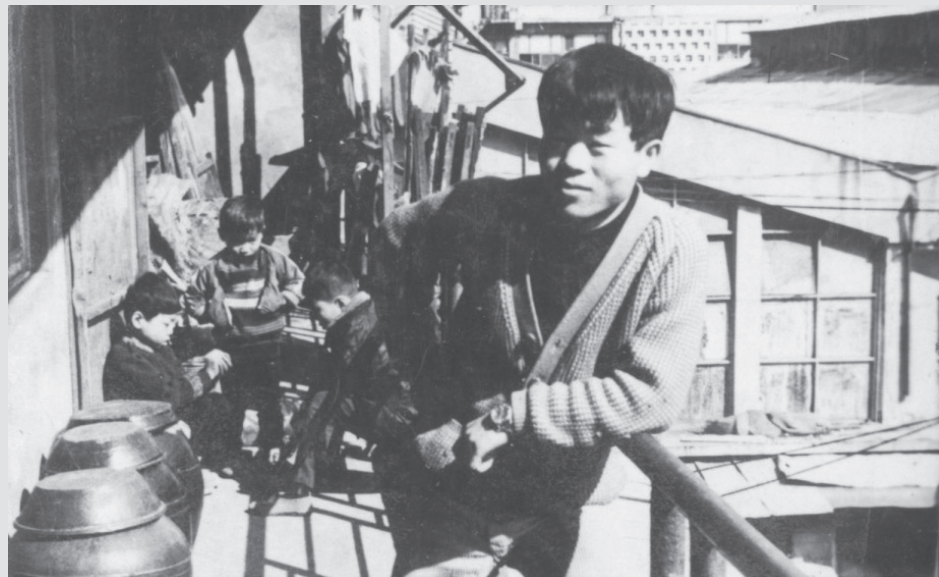
글쓴이 강성호님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고, 학창시절에 장로교회(고신)와 학생신앙운동(SFC)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역사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서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지금은 전남 순천에서 아내와 함께 골목 책방 <그냥과 보통>을 운영하면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를 치우면 좋겠다. 자살한 사람에게 십자가가 웬 말인가?”라는 댓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자살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자살한 사람들의 교회 장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는 기독교인들이 종교라는 틀에 갇혀 타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천시하자는 건 결코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도그마에 갇힌 교리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뭔가 반박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래의 글은 역사학도로서 1991년 5월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쓴 것입니다.

### 전태일, 열사의 기원

자살은 지배에 저항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불문하고 지배 세력에 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경우를 저항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결코 일반적인 형태의 저항이라고 할 수 없죠. 최근만 해도 티베트와 인도에서는 분리 독립을 목적으로 분신자살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최소 127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요는 저항의 수단으로 분신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한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991년 5월 3일에 일어난 한 학생의 죽음도 저항적 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천세용. 1990년 2월 서울 동북고를 졸업한 그는 경원대에 입학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경원대 공대건물 3층 현관 난간 위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5m 아래 바닥으로 투신하였습니다. 분신자살 시도 후 천세용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걸까요?

사실 그해 5월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박승희·김영균·천세용·김기철·윤용하·이정순·차태권·김철수·정상순 등 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분신자살의 방법으로 말이죠. 이때 학생운동은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을 하던 중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전경이 휘두르는 쇠 파이프에 살해되자 6월 항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격렬히 싸웠습니다. 강경대의 죽음에 분노하며 이들은 동조 자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박승희와 김영균, 그리고 천세용의 분신자살은 그해 5월 분신 투쟁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분신자살은 대중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다 87년 민주화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80년대와 같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항적 자살의 시초는 전태일입니다. 그의 분신은 유례가 없던 죽음으로 수용되면서 예수의 부활로도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태일의 죽음이 지배 세력의 폭압에 맞선 극단적 자기희생을 의미했다면, 1980년대에 이르러 지배 세력의 폭압에 죽음으로 저항한 투사로 호명되었다고 합니다(임미리, 95). 이때부터 전태일을 기원으로 열사들이 투쟁의 도덕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세용에 앞서 전태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중노동에 시달리는, 심지어 잠이 오지 않게 하는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도록 강제당하면서, 노동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녔던 스물 셋의 젊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문안교회의 청년들은 전태일의 분신자살에 대한 「참회와 호소의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공모자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교회도 전태일의 죽음에 공모자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전태일의 죽음이 언론이나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 못하자 새문안교회의 청년들은 메마른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금식 기도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교회여! 무엇을 하려는가. 회개하라”고 기성 교회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한편, 진보 기독교 진영에 속한 기독교 청년들은 전태일 사건의 영향으로 노동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어용 노조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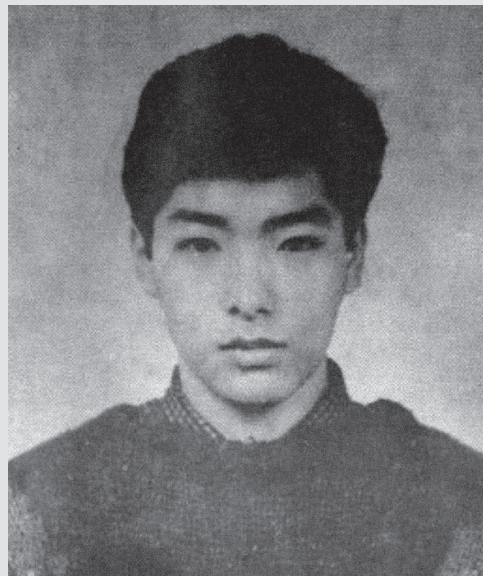


에는 독재와 인간소외의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는 성서 구절(마 25:35-36)이 기독 청년을 향한 하느님의 참 요구이자 놀림에서 자유로 이끄는 산 지표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노동자와 눌린 자의 참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역설했습니다.

### 거리로 나온 사제들

다시 돌아와 천세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천세용은 고등학생 때 영세를 받은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천세용을 살려 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을 나와 서울시청을 향해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성당에서 ‘요한’으로 영세를 받은 천세영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기에 성공회 사제들이 가세하였습니다. 성공회 사제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 현 정부가 민주화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민주화를 실현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 사제들은 천세용의 죽음이 현 정권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제들은 젊은 학생들의 죽음이 모든 기성세대에 대하여 자성과 회



우 서

학우들이여, 이제는 봄시다.  
우리와 같은 학우들이 석재이로에 맞아 죽고  
젊다운 청춘을 불사르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독재자본가들이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 학제들을 학제.수탈하고, 저항이 있는곳마  
다 광란한 탄압을 쳐두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영제 일어났다. 손과 분노를 그 지극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현 정치권력에 맞서 정면  
투쟁, 정면 돌파해 나갑시다.  
많은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제 후까지 여려년  
이 투쟁하여 끝이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손으로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  
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5/3, 천세용  
새명회, 독해분, 민족해방, 민중해방, 민중해방, 노태우정권타도!

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온갖 비리와 사회의 모순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제단은 노태우 정권이 양심적이고 실질적인 민주화 조치를 분명히 취할 때까지 모든 신자와 청년들과 함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천세용의 장례 일정을 놓고 성공회 측은 유가족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운동권 세력과 의견이 충돌되어 장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설전이 오가다 5월 9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그의 장례미사가 열렸습니다. 원래 천세용의 장례미사는 성공회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세용의 분신자살을 접한 성공회 사제들은 열띤 토론 끝에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결이 아니라 폭력 사태와 비민주적 상황에 의한 타살”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1년 전 새문안교회 청년들이 전태일의 죽음에 회개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교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었습니다.

성공회 사제들은 자살한 자의 장례미사를 치를 수 없다는 교회법에 대해 “예식을 해석할 권한이 주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항을 인용하여 장례미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제들은 위선의 재가를 받아 천세용의 죄를 사한다는 의미로 ‘특별 관면’을 발표하였습니다. 성공회 사제들은 그의 죽음이 “귀한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 관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성공회의 시국인식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교회법 또는 관계를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장례미사에서 설교를 맡은 신부는 “비록 요한(천세용)의 분신자살은 가장 고귀하게 생명을 사용한 것이지만,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하자. 오늘 영결 미사를 생명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자리로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장례미사에 참석한 한 신자는 “영세를 받은 천씨가 왜 분신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을 분신으로 내몬 유일한 배후 조종자는 현 정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성공회 사제들은 천세용의 분신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자의 고통, 이웃의 고난에 무관심한 오늘의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외침이지 않을까요. 강연을 나가면 종종 대안에 대해 여쭙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교회에서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구도를 강조하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게 불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타자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상상력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쉽게 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 정리자 스케치 회원 송년회 “TALK TALK TALK”

한 해의 맺음 달, 12월 11일(월) 저녁에 기사연 이제홀에서 2017년 회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예정했던 분들이 추위로 못 오셔서 아쉬웠지만, 회원 30여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송년회를 보냈습니다. 식사 후, 2017년 개혁연대 활동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1월 정기총회부터 3월 명성교회에서, 매월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기도회에서 함께했던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 주신 회원님, 참 감사합니다.



### 회원들의 말말말

첫 번째 질문  
2017년 가장 핫 했던  
교계 이슈와 인물을  
뽑으세요!

명성교회 세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예장통합 요가 이단화,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인 과세, 포항 지진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물로는 김동호 · 김하나 · 문대식 · 박득훈 · 소강석 · 이명희 님이 뽑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에 2018년에  
한국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 한국교회 암적 존재(돈, 권력, 세습) 치유되게 해주세요.
- 교단 통합 및 총회 평화되도록
- 2018년 경축! 초대형 교회 파산(명성 · 사랑 · 소망 · 순복음)
- 교회의 모든 건물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유해요
- 일부 목사와 지도자들의 공개 사과하길
-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없어도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세 번째 질문  
개혁연대 올 한 해 활동  
중 잘한 것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 공적 현금 운동 잘했습니다.
- 교회 문제를 상담하며 공감해 주신 것 감사해요. 아주 칭찬해요.
- 세습 반대하느라 수고 많으세요.
- 모든 일이 귀하지만, 명성교회 세습 관련한 일들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잘 진단하고 대안을 잘 마련하길 기대해요.
- 2018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눈물의 은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연대의 마음 드립니다. 개혁연대 MT해요.
- 문제가 전문적으로 정리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인기 없는 일에 헌신한 분들 너무 고마워요.
- “버티기”를 잘했네요. 2018년에도 그 자리에서 잘 버티어 주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 신임 간사 편지

안녕하세요. (가칭) 교회성폭력상담센터에서 12월 6일부터 일하게 된 최유리 간사입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기독교 언론사 <뉴스앤조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뉴스앤조이> 기자 경력은 저에게 참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2년간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매일 마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계속 마음을 두고 살피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 문제입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교회 내에서 결정권이나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 앞뒤 맥락 고려하지 않고 “여성은 잠잠하라”는 성경 구절 하나만 들이대며 남성에게 복종할 것을 권유당하는 여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교회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회 내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꽃땀으로 물리거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비호 세력에 둘러싸여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가 과연 누구의 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듯했습니다.

그간 저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 피해 여성을 만나고 가해 목사, 가해 선교사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기사를 써 왔습니다. 그런 기사로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어떤 이들은 문제의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안마다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중요한 대처지만, 그것보다는 느리더라도 교회 내 성폭력이 생기지 않는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등 대안에 힘쓰는 일에 더 몰두하고 싶어졌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결코 간단하지 않은 안건을 마주하면서, 저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과연 이게 가능한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에게 참 필요한 말입니다. 교회 곳곳에 숨어 있는 여성 목소리에 세밀히 귀 기울이지만 상황을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현안대처

교회상담 | 교회세습반대운동 | 성평등한교회세우기운동

#### 부설 교회문제상담소

- 대면상담(2건), 전화상담(28건), 온라인 상담, 법률 상담(3건) 등
- 상담책자 『(가제)교회 분쟁, 이렇게 풀어갑시다』 집필 중
- 교회 상담 통계 분석
- 분쟁 교회 제자 훈련 중(12/2부터, 4주)
- 분쟁교회 강의(1회)

#### (가칭)교회성폭력상담센터 개소 준비

- 관련 단체 방문 및 자료 수집
- 삼일교회 협약식(12/26)
- 준비위원회 및 공동대표단 회의 다수

#### 성평등한교회세우기운동

- '성평등위원회' 활동
- 강의 및 인터뷰

이슈파이팅 | 교단총회참관운동

#### 이슈파이팅

- 명성교회 세습반대운동
  - 목회자/교인 온라인 서명운동(현재 총 6,757명)
  - 명성교회 위임식 당일, 세습 반대 피켓 시위(11/12)
  - 세습 반대 기도회(11/14, 장신대 미르바광장)
  - 세습 반대 기도회(11/28, 12/5, 12/12, 12/18)
  -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22일부터)
  - 총회 재판국 앞 피켓 시위(12/19)
  - JTBC, SBS, 시사저널, CBS, 뉴스앤조이 세습 관련 언론인터뷰 다수
- 종교인 납세 관련 활동
  - (성명서) 탐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마라(12/19)

#### 교회세습반대운동

-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안내서』 및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 판매 중
- 교회 세습 제보 접수·상담 진행 중
- [성명서] 김하나 목사님, 세습하지 마십시오(11/11)
- [논평] 명성교회 당회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관한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11/25)

### 특별사업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

####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 "정의의 숨결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 준비위원회 회의(2회)
- 11월 기도회(11/27)
- 블로그 운영 중

#### 공적 현금 운동

- 2018년 사업 계획을 위한 TF 회의(1회)

### 교육지원

말씀과기도운동 | 교육사업

#### 강의

- 정릉교회 특강(11/26)
- 종교개혁 포럼 발제(11/23)
- 분쟁 교회 4주 제자 훈련 중(12/2~)
- 분쟁 교회 강의(1회)

### 대안제시

정관 | 교단개혁운동 | 목회자청빙 | 교회재정건강운동

#### 민주적 정관 찾기 운동

- 정관보급활동(정관상담/자료제공)
-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및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정관』 책 판매 중

#### 목회자청빙운동

- 『바람직한 목회자청빙』 책 판매
- 블로그 통해 가이드 보급
- 개교회 청빙 강의 접수 중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 담당/회의(1회)
- 『한손에 잡히는 교회재정』 책 판매 중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브로셔 개정판 배포중
-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24건)
-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 설명회(기감 고양지방회 등 5건)
- 목회자 납세 간소화 앱(pTAX) 개발 중
- 교회 재정 세미나 '종교인 과세 준비'(11/27)
- TBS '김종배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목회자 소득 신고'

### 연대참여 운영기회

전국네트워크 | 연대사업

#### 교회리스트업

- 협력 교회 정보(정관 유무, 재정 공개 방식, 임기제 유무) 홈페이지 게시

#### 연대사업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준비 중

#### 언론활동

- 홈페이지-언론이 본 개혁연대 참조

기타행사 | 회원사업

#### 회원사업

- 소식지 공감 67호 발행(11월)
- 회원 송년회(12/11)
- 2018년 후원 요청 서신발송

#### 홍보사업

-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월2회)
- 카카오톡 친구/페이스북 운영
- 단체홍보를 위한 부스활동(1건)

#### 집행위/사무국활동

- 집행위원회 회의(월1회)
- 신입간사 채용(최유리 님)
- 사무국 교육의 날
- 사무국 공익경영아카데미 교육 수강

## 1

### 교회개혁실천연대 2018년 정기총회 소집 공고

개혁연대 정기총회가 개혁연대 정관 의거(제3장 12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새로운 출발에 회원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오세요.

####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명성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반대합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오신 참가자가 적어 주신 문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에 듣기에는 참 부끄럽고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교계에 어두운 소식이 넘쳐났던 2017년인 만큼 개혁연대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세습을 막기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분쟁 교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걸음에 동행해 주신 회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는 1월 27일 개혁연대는 2017년을 갈무리하고 2018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개혁연대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고,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지켜봐 주세요.

- 일시: 2018년 1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홀(시청역 8번 출구)
- 프로그램: 1부 공적현금 좌담회, 2부 총회, 3부 식사 및 교제

2017년 12월 15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 2

### 명성교회 세습반대 총회 회관 앞 1인 시위 신청해요

최근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노회 규칙과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세습으로, 취임식에서는 명성교회 측에 의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세반연은 명성교회의 불법, 폭력 세습에 반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명성교회를 법대로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1인/15분, 1일당 4인 동시진행)
- 장소: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앞(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 신청: 문자 02-741-2795, 인터넷 <https://sites.google.com/view/2017seban>

## 3

###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

- 2017년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개혁 기금(국민 093)으로 후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1월 12일경 국세청에 자동 등록될 예정입니다.

- 회원님이 직접 한빛누리 사이트를 통해 출력과 개인정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이용료 부가). 한빛누리 홈페이지 <http://brightcms.webcm.co.kr>

-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회원님은 교회 개혁 기금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을 하고, 사무국으로 문자 주세요(02-741-2795).

교회개혁기금 국민은행 093401-04-088670(한빛누리교회개혁)

관련 문의/신청문자: 김종미 협동실장 02-741-2795



## 11월 운영성과표

계정과목	11월	1~11월
<b>I. 사업수익</b>	<b>16,695,000</b>	<b>140,872,900</b>
1. 회비	14,465,000	114,882,700
(1) 회원회비	8,945,000	54,462,700
(2) 위원회비	2,230,000	20,590,000
(3) 기관회비	3,290,000	39,830,000
2. 후원금	2,230,000	25,415,200
(1) 목적후원금	350,000	13,870,200
(2) 일반후원금	1,345,000	6,010,000
(3) 사업분담금	535,000	5,535,000
3. 사업수익	0	575,000
(1) 행사참가비	0	575,000
<b>IV. 사업외수익</b>	<b>198,048</b>	<b>933,515</b>
(1) 예치금이자	1,848	395,695
(2) 기타수입	196,200	537,820
<b>수입 합 계</b>	<b>16,893,048</b>	<b>141,806,415</b>
<b>II. 사업비용</b>	<b>11,151,040</b>	<b>137,608,259</b>
1. 사업비	7,778,750	96,845,628
(1) 통신교통비	141,350	1,123,930
(2) 사무비(소모품비)	3,000	1,318,000
(3) 장소사용비	0	1,100,900
(4) 식음료비	103,500	3,935,960
(5) 분담금	200,000	2,335,000
(6) 자료구입비	0	4,000
(7) 자료집제작비	0	725,000
(8) 지급수수료	0	29,650
(9) 강사비	0	1,984,754
(10) 정기간행물제작비	718,960	4,994,810
(11) 웹운영비	0	568,600
(12) 홍보비	50,000	950,000
(13) 인터넷동비	0	310,750
(14) 인건비(3.5인)	6,561,940	77,464,274
2. 경상비	3,372,020	40,761,821
가. 인건비	1,840,790	22,973,827
(1) 급여(0.5인)	521,060	5,731,660
(2) 4대보험	723,080	7,531,887
(3) 퇴직급여	290,250	5,567,990
(4) 복리후생비	6,400	2,650,620
(5) 퇴직급여(적립)전입	300,000	1,491,670
나. 사무관리비	1,531,230	17,483,094
(1) 관리비	1,000,000	11,000,000
(2) 통신우편비	181,840	1,685,170
(3) 교통출장비	0	13,420
(4) 사무비(소모품비)	18,400	477,450
(5) 유지보수비	0	398,000
(6) 지급수수료	260,390	3,425,254
(7) 식음료비	70,600	483,800
다. 교육훈련비	0	304,900
(1) 직원교육비	0	304,900
3. 기타지출	270	810
(1) 잡지출	270	810
<b>지출 총 계</b>	<b>11,151,040</b>	<b>137,608,259</b>
<b>V. 당기 순자산의 증(감)</b>	<b>5,742,008</b>	<b>4,198,156</b>

- 11월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사업수익 1,669만 원, 사업외수익 20만 원, 사업비용 1,115만 원으로, 당월순자산 57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 11개월 회비와 후원금 누적 결산 1억 4,029만 원(예산 1억 3,575만 원, 3%) 들어왔습니다. 회원회비 총 329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오니, 올해가 가기 전 후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2월 현재 유동자산(현금+예금)은 1,754만 원입니다(10월 말 사업비가 부족하여, 목적성 적립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자산총계는 7,423만 원(2016년 말 6,872만 원)입니다.
- 개혁연대 사무국은 12월 현재 상근 4명, 비상근 1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후원 명단 (2017년 10월 1일 ~11월 30일)

**기관회비:** 거룩한빛광성교회(2), 건강한작은교회연합(2), 그루터기교회(2), 기산교회(2), 나눔과섬김교회(12), 너머서교회(2), 네모교회(2), 더작은교회(3), 두레교회 사회부(2), 뜨인들교회(2), 마산재건교회(2), 모퉁이교회(2), 밝은누리(2), 복음자리교회(2), 부천 새들녘교회(2), 분당소망교회(2), 산울교회(2), 삼일교회 선교부, 새길교회(2), 새들녘교회(2), 새맘교회(2), 샘터교회(2), 생명사랑교회 선교부(2), 서울가향교회(2), 서울영동교회(2), 서정제일교회(2), 숲과싸교회, 언덕교회(2), 연청동우회(2), 예수이길교회(2), 예수이야기교회, 예인교회(2), 우리교회(2), 은현교회(2), 이든교회(2), 주날개그늘교회(2), 주님의교회(2), 주사랑교회(2), 장감다리교회(2), 친구교회, 푸른교회(2), 하이공동체교회(2), 함께여는교회(2), 함께여는교회예수마을(2), 향린교회 선교부(2)(사랑누리교회, 해인교회)(47곳/총 48곳)

**위원회비:** 고상환(2), 구교형(2), 길형준(2), 김동민(2), 김성철, 김성학(2), 김승무(3), 김애희(2), 김홍섭(2), 남오성(2), 박득훈(2), 박종만(2), 방인성(6), 백종국(2), 손봉호(2), 신홍식(3), 안현식(2), 윤경아(2), 윤선주(2), 이만열, 이명희(2), 이방욱(6), 임왕성(2), 정성규(2), 정운형(2), 조석민(2), 최갑주(2), 최윤호(2), 최철호(2), 황병구(2), 황영수(2)(김정태, 박찬호, 최윤정)(34명/총 50명)

**회원회비:** \*강병우(2), \*강승연, \*김술아, \*김희철, \*박종우, \*송성규, \*유서연, \*정창해, \*정호진, \*정호섭, \*하수동(2), 강경태(2), 강경훈(2), 강대남(2), 강은희(2), 강홍석(2), 고영택(2), 공세자(2), 공영찬(2), 박은이(2), 구옥서(2), 국지연(2), 김광진, 김국형(2), 김남진/주효숙(3), 김대인(2), 김덕용(2), 김동영(2), 김동주(2), 김명근(2), 김명수(2), 김문찬(2), 김사원(2), 김병환, 김상진(2), 김석렬(2), 김석주(2), 김성중(2), 김성수(2), 김성현(2), 김양희(2), 김영석, 김영숙(2), 김영조(2), 김오봉(2), 김용미(2), 김은선(2), 김은우(2), 김은표(2), 김일환, 김재수(2), 김재환(2), 김정만(2), 김정국(2), 김정철, 김정혁(2), 김정현(2), 김정훈(2), 김주영(2), 김준수A(2), 김준수B(4), 김지형(2), 김진홍(2), 김철규(2), 김태환(2), 김택산(2), 김학로(2), 김현(2), 김현기(2), 김형찬(2), 김형태(2), 김호경(2), 노민호(2), 도윤표(2), 도임방주(2), 류상현(2), 목영협(2), 민재준(2), 박기환, 박대영(2), 박상호(2), 박석배(2), 박선영(2), 박성완(2), 박영은(2), 박윤만, 박원주, 박은상(2), 박정래(2), 박종선(3), 박종원(2), 박찬오(2), 박춘원, 박현수(2), 반원익(2), 방다혜(2), 방성현(2), 서유미(2), 서재규(3), 성수임(2), 손미향(2), 손은희(2), 송상근(2), 송인수(2), 송한기(2), 신광해(2), 신상국(2), 신현준(2), 신형식(2), 안세진(2), 안인원(2), 안재영(2), 양미혜(2), 양완범(2), 양요한(2), 양훈(2), 엄두정(2), 염은희(3), 오미정, 오성균(2), 오영아(2), 오정훈(2), 오현택(2), 우상범(2), 우정석(2), 우철(2), 원창희(2), 위우정(2), 유덕현(2), 유선호(2), 유연기(2), 윤기원(2), 윤세중(2), 윤영준(2), 윤환철(2), 이강우(2), 이광구(2), 이광하(2), 이동률(2), 이득린(2), 이명희/유한열(3), 이미정/김중현(2), 이상형(2), 이석원(2), 이성세/최성찬(2), 이수호(2), 이순조(2), 이승규(2), 이승근(2), 이영이(2), 이용관(2), 이용필(2), 이원근(2), 이윤현(2), 이재구(2), 이재목/홍정아(2), 이종규(2), 이종수(2), 이종연(2), 이찬민(2), 이태승(2), 이혜복(2), 이희영(2), 이희정(2), 인영수(2), 임경준(2), 임병길(2), 임상래(2), 임영환(3), 임완민(3), 장기중, 장명환(2), 장봉갑(2), 장용철(2), 장현호(2), 전문수(2), 정기웅(2), 정봉희(2), 정성용(2), 정석구, 정유섭(2), 정일영(2), 정재경(2), 정재준(2), 정준집(2), 조건영(2), 조광희(3), 조만호(2), 조영근(2), 조요나, 조운정(2), 조현정(2), 주동재(2), 지용태(2), 차용태(2), 최두진(2), 최상태(2), 최인혁(2), 최지훈(2), 탁성만(2), 한규주(2), 한민욱(2), 한명석(2), 한병덕(2), 한복연(2), 한상은(2), 함봉식(2), 현삼원(2), 홍민식(2), 홍성진(2), 홍한표(2), 황봉수(2), 황진옥(2)(213명/총 299명)

**목적후원금:** 김명수(소식지), 예인교회(상담소, 2회)

**일반후원금:**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안준배), \*권성태, \*전경화, \*조문정, 김학빈(2), 더함공동체교회(2), 박득훈(3), 박세진(2), 백종국, 조원숙(2)

**사업분담금:** 교회재정건강성운동(2), 한빛누리 직무교육비

**물품/간식/장소후원:** 김정태, 이연정, 김예원, 박종만(3), 방인성, 윤환철, 최윤호, 이장태, 김동민, 오세원, 익명

**총회원수:** 정회원 349명(위원 포함), 관심회원 3,979명

\* 표시: 신입회원 11명, 신입교회 0곳 등록, ( ) 표시: ~회 후원, + 표시: 후원금 증액, [ ] 표시: 일시불 후원

\* 월별 자세한 회계보고는 홈페이지-재정보고 게시판에 확인해주세요.

\* 후원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자동이체 만기 확인 및 미납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